"작지만 알차다" 광주서 보는 명품 연극

■ 광주국제공연예술제 D-4

'햄릿…' 광대가 노래하는 셰익스피어
'허삼관 …' 유쾌하게 풀어낸 매혈기
'휴먼 …' 여관서 벌어지는 추적 압권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국제 공연예술제에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작 공연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공연은 규모는 작지만 해외무대에서 호평 받았던 작품들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다.

▲고전의 재해석-노래하듯이 햄릿(22~23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노래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극단 '뛰다'의 작품으로 '거울 공주 평강 이야기'와 함께 '뛰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외국 유명 페스티벌에서도 수차례 공연됐었다.

극이 시작되면 4명의 광대가 등장한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햄릿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햄릿, 오필리어의 역할을 하는 건 광대가 연기하는 '인형'들이다. 28곡의 아름다운 노래가 극의 분위기를 살리며 한 가지 표정만을 갖고 있는 인형이지만 작품에 빠져들다 보면 인형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광주연극의 현재-허삼관 매혈기 (25~26일)

광주연극배우협회(회장 류지영) 회원들이 총출동하는 작품으로 위화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옮겼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피를 팔아야 하는 주인공 허삼관의 비참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연출가 강대홍(48·극단 미추)씨와 지역 배우들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가는 무대이기도 하다. 2003년 강씨가 연출했던 '허삼관매혈기'는 그해 평론가협회 올해의 우수 연극상,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극협회 올해의 베스트 7, 히서연극상 등을 휩쓸었었다.

허삼관 역의 김상오, 허옥란역의 류지영씨를 비롯, 정은희·이기인·정경아·이당금·양정인씨 등 20여명이 출연한다.

▲눈물, 웃음 감동-휴먼 코미디 (28~29일)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선보이는 작품으로 모두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잡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거기서 풀어내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이 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 단순한 소재에서 출발한 '가족'은 간단한 듯 한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다 결국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품이다.

압권은 마지막에 선보이는 '추적'이다. 여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유쾌하게 그린 추적은 6명의 배우가 수시로 변신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마지막 변신 과정을 보여주는 커튼콜을 놓치지 말 것. 연극 보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휴먼 코미디'

'허삼관 매혈기'

티켓 판매 호조

한편 모두 11작품이 선보이는 공연예술제 티켓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료티켓 판매가 1만 3천장을 넘어섰으며 이탈리아 산 카를로 극장 초청 갈라쇼 오페라 '투란도트'는 오래 전에 매진됐고, '휴먼코미디' '베스트 오브 베스트'도 매진이다. 개막작인 '로미오와 줄리엣'과 강동석 등이 출연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공연도 80%가 넘는 객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www.gipaf.org. 문의 062-654-8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글서예와 문인화의 만남

문인화가 백준선씨 등 광주 작가들 예술의 전당 '한글서예대축제' 참가

문인화가 백준선씨 등 광주지역 작가들이 오는 19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9 한글서예대축제'에 참가한다.

한글서예대축제는 국내 대표 서예, 문인화가들을 초청해 한글 서예 작품을 선보이는 일종의 서예 비엔날레이며, 이번이 3번째 행사이다.

광주에서는 백씨와 김영삼, 문재평, 정남희씨 등이 참여해 한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조형세계를 선보인다.

백씨는 어린 소녀에 얽힌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단아한 대나무 그림을 곁들인 '계집애'를 선보인다. 문의 02-2264-62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백준선 작 '계집애'

권진씨 첫 개인전 '자서전을 쓰다'

21일까지 궁동 상계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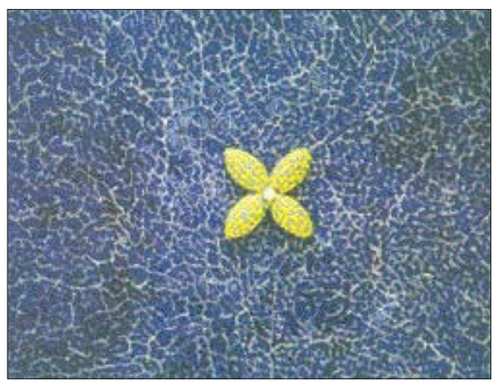
서양화가 권진씨가 16~21일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상계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권씨는 '자서전을 쓰다'를 주제로 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마사토를 발라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낸 뒤 수십 차례 붓질을 반복해 대상을 표현했다. 마사토가 마르면서 갈라지고, 다시 물감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굴곡과 무늬를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사생회, 순천미술대전 추천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명'

문남원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전

20일까지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미국 뉴욕의 프리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문남원씨가 오는 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이트에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문씨는 'Aspiration-열망'을 주제로 한국의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 디자인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씨는 세계 디자인 올림픽 행사축제 초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전, 월드컵 기념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 의상전 등에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열망'

공연예술제 판매기금 소외계층 지원

오는 20일 시작하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지역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들의 문화 활동 지원 도우미로 나선다.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 및 포스터 판매 기금 전액을 지역아동센터의 문화 예술 교육 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주최측은 이번 축제에 이탈리아 오페라 '투란도트',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등 화제작이 많이 프로그램 등의 판매액이 최소 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에듀 프로젝트 뮤지컬'을 기획하고 있는 그레이스뮤지션스 등의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행복 '나인스트링 챔버' 공연

21일 어린왕자 스튜디오

'천원의 행복에 초대합니다.'

1천원으로 클래식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 10월 행사 '10월 나인스트링 음악이야기'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선보이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에서는 챔버앙상블 '나인스트링 챔버'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클래식과 '거위의 꿈' 등 가요를 현악 앙상블로 들려준다.

또 장민씨가 비올라 솔로곡으로 '섬집 아기'를 들려준다.

'빛고을 천원의 행복'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열린다.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야외음악회'

오늘 야외특설무대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대만)은 16일 오후 7시 복지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를 연다.

장애인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올해로 5회째 맞는 대표적인 문화행사이다.

장애인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이번 무대는 금관 5중주를 비롯해 성악, 포크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꿈꾸는 예술단'의 흥겨운 무대로 문을 열고, 포크가수 기현수, 심해정, 한가은, 박정식씨 등이 노래와 춤을 선사한다.

문의 062-513-097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